윤 정부 초대 장관들 김부겸이 제청하나

청문 지연 한덕수 인준 늦어져
행정공백 방지 위해 제청 가능성
김, 출범뒤 2~3일 더 근무 소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새 정부 초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김 총리가 일단 새 장관들을 제청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이다.

애초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돼 새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로 한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된 탓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 출범 전에 청문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 자리를 공석으로 둘 경우.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 절차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새 내각 구성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소속 장관들이 새 정부 출범 전날 일괄사퇴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새 장관들 제청이 늦어지면 해당 부처는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최악의 경우 국무회의 개의·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없는 국정 공백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김 총리가 일정 기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총리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요일인 13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청권 행사 대상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 총리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2~3일로 예정돼 있어 정부 출범 전까지 인준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2일 청문회를 거쳐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임명된다면 추 후보자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제 그만 자리로 돌아가세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 목포시장 후보 경선 중단…전략지역구 지정

중앙당, 입당원서 유출 의혹 조사
결과 따라 후보 선정 방식·시기 결정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 경선이 중단되고, 전략지역구로 지정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목포시장 후보 경선(28~29일)을 앞두고 제기된 목포지역 입당원서 파일 유출 의혹에 대해 중앙당이 조사에 나섰다.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입당원서 유출 의혹과 관련, 중앙당 조사 착수와 함께 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 선정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당 담당자들은 목포 현장에서 유출 의혹이 제기된 문건이 당원 명부인지 아니면 단순 입당원서 파일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또 해당 문건이 외부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문건은 목포시민 약 8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유출 의혹 문건에 민주당 목포지역 권리당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목포시장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입당원서일 것으로 보이고 권리당원 명부는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므로 접근할 수 없다"며 "당원 명부가 오염됐다고 판단되면 목포시장 경선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앙당 비대위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당원서 유출 의혹과 관련, 경선 후보들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실에서 민주당 목포지역 경선 전면 중단과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예비후보는 이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5월이고 본 캠프와 관련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박 모 씨는 캠프의 수많은 자원봉사자 가운데 1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최근에 합류했으며, 당원명부는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본 사실조차 없다고 김 후보는 해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6·1 지방선거 라운지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전남 행복시대 열겠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전남 도민의 큰 사랑과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며 "도민과 손잡고 '대도약 전남시대,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도약하는 역사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선거사무소를 순천에 둘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정기명 여수시장 예비후보 "김유화 화합의 정치 잇겠다"

더불어민주당 정기명〈사진〉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함께 경선에 나섰던 김유화 예비후보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

김유화 예비후보는 27일 오후 2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통과 화합의 여수' 적임자로 정기명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여수시장은 무엇보다 갈등으로 산산 조각난 여수시를 봉합해 소통과 화합의 여수시를 만들 사람이어야 한다"며 "정기명 예비후보가 허물없이 소통하며 시민들을 잘 섬기고, 여수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적임자다"고 강조했다.

정기명 예비후보는 "시장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김 예비후보께서 강조하신 소통과 화합의 정치, 소외받는 이가 없는 여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 "박인철 지지선언 승리로 보답"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는 "2차 경선 없이 곧바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 예비후보는 최근 박인철 예비후보의 지지선언과 관련, "미래 4년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완도군을 향한 박 후보의 진심 어린 마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승리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또 "완도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투명한 공약과 정책으로 군수선거에 임하자"며 "가짜뉴스나 유언비어, 음해성 흑색선전에 일체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 취재본부장 ejhung@

김준성 영광군수 예비후보 "성산 명품 공원으로 만들겠다"

김준성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는 27일 백학리와 무령리에 속해 있는 성산을 '물무산 행복숲'에 이어 제2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책선거를 내걸며 1일1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김 후보는 "군민의 42%가 영광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읍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접근성이 편리한 성산에도 명품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3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성산공원의 명품화를 위해 "에코숲 조성과 숲속에 놀이터와 도서관을 제시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주차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 "주말 자율학교 운영하겠다"

강진원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예비후보가 27일 기존 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취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말 자율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말 자율학교는 교실 두 칸 규모로 조성해 학습부진 과목에 대해 수준별 학습코칭을 지원하고 댄스, 네일아트, 코딩, 드론, IT와 같은 4차 산업혁명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 예비후보는 "강진읍과 거리가 먼 면 소재지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취미,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소외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면서 "주말 자율학교가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